

현관

첫인상은 중요하다.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은 물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현관이다. 그래서 현관은 우리 집의 첫인상이다. 일반적으로 좁고 어둡게 마련인 현관. 때문에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관의 첫인상이 바로 집주인의 이미지와 오버랩된다면? 아마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찾아오는 이는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맞이하고, 돌아가는 이는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현관 분위기가 필요하다. **Design X-file 실내 인테리어를 엿볼 수 있는 통일된 감각으로 디자인한다.**



case 1 곡선보다는 직선을 주로 사용한 단순한 실내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현관 이미지. 편안한 느낌의 내추럴베이지를 주조 색으로 하고 짙은 갈색(월넛 무늬목)을 포인트 컬러로 이용했다. 중문 유리에 에칭 작업을 통해 X자 모양을 넣어 변화를 주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벽에 닿지 않도록 엘보(이음쇠의 일종)를 설치했고, 신발장 한쪽 면은 거울을 설치해 좁은 현관에 공간감을 더했다.

case 2 집을 찾는 이의 모습과 거실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현관은 베란다를 확장한 후 설치한 게이트와 같은색(체리 무늬목)으로 프레임을 선택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소파 옆쪽에는 오픈장을 짜넣어 수납을 겸한 장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case 3 고급스런 느낌의 클래식 기구와 나무 소재를 실내 마감재로 사용했음을 현관을 들어서서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 현관의 중문 위치를 옮겨 많은 양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을 설치했다. 수납 공간이 많은 만큼 현관 입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사각 오브제 형식의 신발장 디자인이 공간 이미지를 산뜻하게 이끈다.

거실

전통적으로 거실의 기능은 가족 모두의 화목 공간이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거실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며, 손님 접대 공간이며,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취미 공간을 겸하기도 한다. 때문에 가족 모두의 감각이 고루 투영된 편리하고 합리적인 공간 연출이 필요하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법,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그리고 아름답고 개성미 넘치는 거실 디자인을 찾아보자.

Design X-file 우리집만의 디자인 감각과 컬러를 찾아 독특한 공간을 만든다.



case 1 사각 오브제 벽장식과 독특한 디자인의 병풍형 접이문이 눈길을 끄는 거실.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단정함을 강조하고 내추럴한 색상의 마감재와 편안한 디자인의 소파로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끈다. 메인 등은 실내의 직선형 디자인과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 둥근 공 모양을 선택했다. 천장 중앙의 사각 박스와 벽쪽에는 홈을 파서 형광등을 넣어 간접 조명을 설치했다. 장식성을 배제한 깔끔한 디자인이 포인트.

case 2 '옛' 물건에 관심이 많은 안주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실 표정이 남다르다. 기존의 가구와 하나씩 컬렉션한 엔틱 가구와 소품들의 편안한 조화가 이 집 거실만의 개성미다. 자연스런 나무 질감이 살아 있는 소파는 실내 분위기와 어울려 무리 없는 코디네이션을 보여준다. 확장한 베란다 창에는 패널 형태의 패브릭 커튼으로 장식해 자칫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 실내 분위기를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case 3 여성미가 넘치는 선이 고운 클래식 소파와 창을 통해 스며드는 햇빛이 조화가 아름다운 거실이다. 베란다는 확장은 하지, 메인 거실과는 분리시켜 좀더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했다. 꼭 필요한 장식만을 넣어 단순미를 살리는 동시에 로맨틱한 이 집만의 달콤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case 4 복층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 쾌적하고 신뜻한 공간 디자인이다. 눈부시도록 화사하고 아름다운 아이보리빛 거실은 높은 천장과 더불어 이국적인 공간미를 발산한다. 복층 아파트의 장점이자 단점은 천장이 높다는 것. 높은 천장 덕에 시야는 시원스럽지만 자칫 썰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보리는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를 포함하는 데 안정맞춤인 색으로 복층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부드러운 아이보리빛으로 통일한 실내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장식장을 짜 넣어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더해준다.

베란다

좁은 아파트 공간일수록 베란다의 역할은 막중하다. 확장을 해 기존 공간을 넓게 쓸수도 있고, 삭막한 공동주택 한켠에 녹색 식물을 배치한 작은 심터를 꾸밀 수도 있고, 수납장을 넉넉하게 짜 넣어 크고 작은 살림살이들을 정리하고 수납할 수도 있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 수도 있는 베란다. 재미있는 사례들을 모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상 외의 멋진 공간이 탄생한다. 하나씩 돌씩 아이디어를 꺼내어 우리 집에 적용시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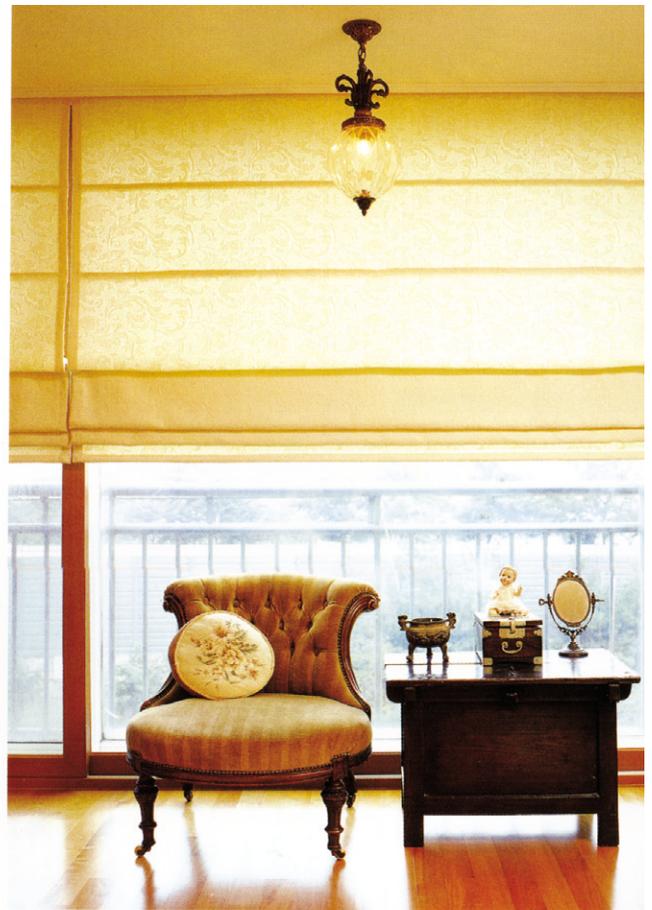
Design X-file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한 평을 찾았다.



case 1 문과 문턱을 없애고 거실과 한 공간으로 개조한 베란다.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베란다 내벽 안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부족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창 아래에 놓인 미니 벤치는 전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어준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공간을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이끈다.

case 2 베란다를 확장해 넓어진 창가에 고풍스런 반달이와 고전적인 디자인의 의자를 놓아 장식했다. 주인이 20년 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엔틱 소품 가운데 하나인 반달이는 콘솔처럼 장식 가구에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다. 조영 역시 엔틱 스타일로 골라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했다. 동서양의 클래식 무드가 조화롭게 표현된 아름다운 공간이다.

case 3 베란다 한쪽에 만든 아담한 실내 정원.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종류의 화분과 조각, 장식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싱그러운 물내음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작은 테이블과 흔들의자를 놓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랑스런 코지 코너를 완성했다.





case 4 보통 거실 안쪽에 놓게 되는 수납장을 베란다의 크기에 맞게 제작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키가 큰 수납장이 베란다로 나간 대신, 소파와 텔레비전을 올려놓은 장식장은 비교적 키가 낮은 가구를 선택해 편안한 실내 분위기에 맞추었다.



case 5 확장한 베란다를 작은 갤러리로 꾸민 예. 양 끝에 짜 넣은 수납장에는 깨지거나 다 치기 쉬운 수직품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천장에는 장식적인 한지 등을 달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침실 창가 쪽 베란다에는 긴 장식 선반 위에 예쁜 꽃병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놓아 침실에서는 아끼는 수직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case 6 침실 베란다는 바닥을 높여서 휴식 공간을 만들고, 바닥 아래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바닥을 높였기 때문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는 대신 좌식으로 꾸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화이트 톤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와 실용성을 겸한 아이디어 공간이다.



case 7 깔끔한 가구 배치와 밝고 차분한 컬러가 돋보이는 거실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세련된 디자인의 베란다 문. 거실 베란다는 확장한 후 미닫이문을 달아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에는 닫아놓고 아늑한 신혼 분위기를 즐기다가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하는 날에는 활짝 열어 거실 공간을 넓힌다.

부부 침실

부부만의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의외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남다른 감각으로 조금씩 과감한 컬러 선택과 가구 코디네이션을 감행해보자. 자중빛이나 황금색 등 짙고 특별한 우리 집만의 침실 컬러를 찾아 배치하면 개성 넘치는 침실 표정을 만들 수 있다. 바쁜 하루를 마감하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자. 따뜻한 컬러와 편안한 조도, 통풍을 고려한 창의 위치 등을 고려한 아늑한 부부 침실을 만나보자.

Design X-file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다.



case 1 크림색 로만 셰이드와 벽지를 사용해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화려한 큰 꽃무늬 침장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준 침실은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화사함을 느끼게 한다. 발코니 문을 없애고 침실과 연결된 공간에 코지 코너를 만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차림으로 독서를 하거나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어준다.

case 2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면 언제나 신선한 자연과 만나는 침실. 창가에 침대 헤드 보드까지 적당하게 높은 벽에는 미닫이 새시 창을 내고, 통창으로 설계한 침실은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의 한적한 삶을 누리게 한다. 여기에 복잡한 장식성을 피한 잔잔한 꽃무늬의 로만 셰이드와 롤블라인드는 침실을 더욱 편안하게 연출한다.



case 3 침대 전체 폭에 맞추어 제작한 사각 벽 장식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사각 벽 장식 안쪽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침대에서 사용하는 스탠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침대 프레임에 확장해 사이드 테이블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콘센트까지 설치해 전화기 등의 사용을 쉽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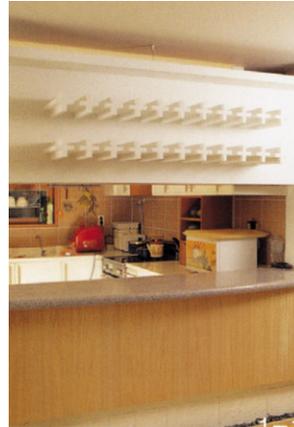
부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부엌은 집안의 중심에 있다. 쾌적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된 부엌은 주부의 작업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인테리어 '목적'이 되고 있다. 주부 동선에 맞는 작업대의 배치는 물론, 디자인 요소까지 가미된 아름다운 부엌은 주부들의 꿈이다. 가족 모두의 화목 공간으로 거듭난 행복한 부엌 이야기.

Design X-file 가능성을 최대한 살린 편리한 부엌을 만든다.



case 3 수납을 돕는 파티션 가구로 깔끔하게 꾸민 부엌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부엌을 깨끗하게 연출하는 요령은 효과적으로 파티션을 이용하는 것. 어수선한 조리 공간을 가려주면서 자칫한 부엌 살림을 수납하는 장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설치했다. 부엌과 거실을 구분하는 파티션으로는 서랍이 달린 카운트형 식탁을 놓았다. 식탁, 홈, 바, 파티션, 수납장 등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식탁은 좁은 부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case 1 밝은 원목 느낌 그대로 게이트와 와인 바를 만들어 쾌적한 이미지를 전한다. 와인 바는 조리 공간을 가려주는 파티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보조 테이블로 활용한다. 바쁜 아침 식사 때는 물론 분위기 있는 홈 바 기능을 특특히 해내는 사랑받는 공간이다. 바닥에는 홈을 내어 자갈을 깔고 아래쪽에서 간접 조명이 비치도록 해 은은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case 2 식당 왼쪽은 조리 공간으로, 미닫이 문을 달아 식당과는 분리된 느낌으로 설계했다. 부엌 가구는 화이트 컬러로 통일하고, 벽에 설치한 식기 건조기만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다. 두 가지 색상의 타일을 매치시킨 조리 공간의 벽면은 세련된 컬러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조명은 광천장으로 설치해 깨끗한 조리 공간을 돋보이게 한다. 식당 뒤쪽 베란다를 터서 바닥을 높여 마련한 공간에도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싱크대와 오븐을 들여 조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방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엄마의 꿈은 아이 방을 꾸미며 펼쳐진다.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추울까, 더울까 마음 쓰는 엄마의 마음, 아이 방은 나이, 성별, 그리고 취미나 성향에 맞춰 개성 있게 꾸며야 한다. 아이가 맘껏 꿈꿀 수 있는 사랑스런 공간 이미지를 찾아 보자.

Design X-file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아이의 꿈을 담아 꾸민다



case 1 부엌 옆의 다용도실을 확장해 넓힌 아이 방. 넓어진 공간에는 책상을 놓고, 불박이장을 설치해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전망이 좋았던 다용도실 창은 난방을 보강하고 조망을 최대한 실려 한결 아늑한 아이 방으로 꾸몄다. 침대 쪽 벽면은 옐로우색으로 마감해 공간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case 2 뒷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방으로 채광이 좋지 않은 상태. 공부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둡고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침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밝은 빛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방 분위기를 밝게 꾸미기 위해 환한 파스텔 톤의 벽지와 가구를 선택했다.



case 3 남매가 함께 사용하는 침실. 파스텔 톤 벽지와 가구들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개의 침대를 마주 보게 배치해 공간을 절약하고, 남은 공간에 책꽂이와 간이 책상을 놓아 침실과 공부방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천장에는 아광 별 스티커를 붙여 엄마의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한다.

case 4 형제가 함께 사용하는 침실. 짙은 컬러의 마루를 깔아 차분한 느낌을 만든다. 벽지는 블루와 아이보리 투 톤 컬러를 매치시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이끈다. 침대와 서랍장 같은 가구들로 아이보리 톤으로 맞추었다. 푸른색은 긴장과 불안함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컬러로 아이들 방에 제격이다.



